

투데이 칼럼

역전의 인천상륙작전

6. 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인민군은 서울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두 달 만에 낙동강 이남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했다.

개전 초기부터 속절없이 밀려던 국군이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건, 바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다.

전장의 판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15일에 전격적으로 감행됐다. 올해는 73주년이 되는 해다. 인천 상륙작전의 주 무대는 월미도 지역 곳곳이다.

팔미도 근해로 출항한 함정이 거침없이 바다를 가르고, 상륙돌격장갑차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가로 향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를 되살린 작전이다. 그날의 흔적은 인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됐던 어느 노병은 당시 가장 길었음을 법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 2기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94세의 6.25 전쟁 영웅이다. 그는 인천 상륙할 적에 상륙장갑차를 탔다.

1950년 9월 12일 약관의 나이로 부산에서 전함을 탔다. 그리고 서울 뒤인 9월 15일 북한군에게 점령된 고창 땅, 인천에 상륙하게 됐다. 그때까지 모든 것은 비밀이었다. 부산에서 미군 배를 타고 보니 팔



정복규

논설위원

미도였다. 그래서 인천에 상륙하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천을 하루 만에 탈환하고 수도 서울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는 서울 진입로인 연희 104고지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북한군이 구축한 서울 사수 최후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의 주인공이 됐다.

중앙청에 태극기 올릴 적에 그 기분이야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양호명 '크로마이트'로 계획된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며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심한 조수 간만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 때문에 성공 확률 5천분의 1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미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

고 대규모 병력을 구성했다.

당시 유엔군과 우리나라 군은 모두 합해서 7만5,000명이었다. 배는 부산과 일본에서 출항한 총 261척이 전력도로 집결했다.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투입된 장사 상륙작전의 확대병들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배놓을 수 없는 주역들이다.

월미도는 1950년 9월 15일 작전이 개시된 후 유엔군이 가장 처음 상륙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의 저항을 제압하고 이 해안을 통해 마침내 상륙할 수 있었다.

이어서 또 다른 지점에서 교두보를 확보해 전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전투의 역사적 현장도 있다. 수로가 좁고 갯벌이 넓어 인천은 대규모 함대가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이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작전 당일 새벽, 3시간의 만조를 이용해 세 갈래로 작전을 개시했다. 인천상륙작전 지점은 총 3곳이다. 월미도 녹색해안은 암호명으로 그린비지라고 했다.

또 한 곳은 적색 해안, 레드 비치라고 했다. 마지막 한 곳은 청색 해안 블루 비치라고 했다. 오전 6시 33분, 첫 번째 지점인 월미도 녹색해안에 상륙한 군인들은 약 한 시간 반 만에 오전 8시에 월미도를 장악한다.

이 기세를 몰아 오후 5시 30분엔 적색 해안과 청색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졌다. 레드비치는 의미는 모든 합선에서 합포 사격을 집중적으로 하려는 의미의 암호명이다. 높은 방파제를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오르는 모습은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맥아더 길을 따라, 인천의 시가지로 향하던 인천역 철도길 너머가 보인다. 이곳은 서울 수복의 발판을 다진 기념적인 장소다. 인천 시가전을 통해서 그리고 인천 내륙 진출을 통해서 서울 수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북한은 인천상륙작전을 월미도 방어 전투라고 부른다. 패한 전투였지만 오히려 상륙군을 상대로 결사 항전을 벌였다며 이를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 선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스라엘 공습, 연기 치솟는 가자지구



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환모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전투기를 늘리는 등 지원에 착수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아프간 강진, 지금까지 최소 2000명 사망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제데호진에서 아프간 남성들이 지진 희생자를 찾고 있다.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7일 헤라트주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한 후 강한 여진이 여덟 차례 이어져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사설

피스디자이너 미래세대

피스디자이너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통일기행이 지난 9월 전북지역 청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전북지회가 추진했다.

이날 통일기행은 통일의식 교육과 현장체험 학습을 했다. 현장체험은 대전통일관을 방문, 베를린 장벽 붕괴 사진 등 독일 통일 관련 자료 등을 두루 둘러보았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에 등록된 YSP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로 청년 평화 활동가, 이른바 피스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요즘 일부 젊은 세대는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역사성이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통일조국 건설이야말로 이 시대 남북 위기 극복의 방안이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초석이 되는 일이다. 통일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한편 세계평화청년

학생연합(YSP)은 지난 2월 청심 피스디자이너 UN캠프를 스위스 등지에서 7일간 진행했다.

캠프는 청심국제중고 소속 피스디자이너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캠프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제네바 유엔본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탐방했다.

컨퍼런스는 인권, 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를 논의한 자리였다.

YSP와 제네바 국제연구대학원이 파트너로 참여했다. 제네바 국제연구대학원생 등 40여명도 참석했다.

학생들은 환경과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교육격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과 차세대 전문가들에게 이 시대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권장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주평화2동 그린2차 경로당 자원봉사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평화2동봉사단'의 자원봉사 활동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곳 봉사단은 평화2동 그린2차 경로당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평화1어린이공원과 평화2동생태공원에 꽃길을 조성했다.

특히 '체육시설 깨끗이 닦기' 봉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소속 노인자원봉사 '평화2봉사단'은 20명의 단원으로 이뤄졌다. 평화2봉사단은 2023년 창단한 신규 봉사단이다.

평화2동 분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인식(77) 단장이 앞장서고 있다. 평화2동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평소 사회 활동을 참여와 봉사 활동에 뜻이 있는 어르신들을 모집하여 결성했다.

이 봉사단은 70세부터 89세의 어르신들이 참여 중이다. 건강과 사회 참여를 위해 주변 3개 경로당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평화어

린이공원 체육시설 닦기와 버려진 쓰레기,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여 말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는 전주시 양묘장으로부터 꽃 육묘 50편을 후원받아 평화2동생태공원에 꽃길 조성을 했다. 앞으로 잡초 제거 및 꽃길을 적극 관리하기로 다짐도 했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어느 주민은 "어르신들이 앞장서 꽃길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니 산책로 이용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여 우리들도 더욱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게 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인식 단장은 "그동안 이용할 불편 알았지 이렇게 꽃길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깨끗하게 닦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니 더욱 보람되고 즐겁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항상 꽃밭에 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람과 희망을 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